

내세관의 사회심리학: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 일 호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내세관과 사회 및 성격 심리학적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290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주요 내세관 유형, 즉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그리고 불분명형의 심리적 특징들과 사회적 인지양식(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사고의 귀인, 부정적 사건에 관한 비현실적 낙관성), 긍정적 환상의 기능(문화적 자기관과의 관계,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여), 및 위험감수(risk taking) 경향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내세관 유형에 따른 몇 가지 심리적 특징의 차이가 밝혀졌다. 첫째,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은 소멸형보다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사고 발생에 관한 귀인 양식에 있어 소멸형과 불분명형은 천국지옥형보다 외부귀인 경향이 강했다. 셋째,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에 관해서는 내세관 유형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내세관에 따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에 수반되는 긍정적 환상의 종류와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긍정적 환상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소멸형은 천국지옥형보다 위험감수 경향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내세관 특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내세관, 세상의 공정성, 사고의 귀인, 비현실적 낙관성, 긍정적 환상, 위험감수경향

[†] 교신저자 : 이누미야 요시유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e-mail; inumiya@hanmail.net

한국인의 내세관에 관하여 이누미야, 최일호 및 한성열(2001)은 사후세계에 대한 표상을 분석하여 9가지의 내세관 유형과 11가지의 관련 특성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네 가지 주요 내세관 유형과 그 내부구조(내세관 유형에 따른 관련 특성들의 수준 차이 및 특성들간의 관계)를 밝혔다. 즉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그리고 소멸형이라는 네 가지 유형의 내세관은 각각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내세관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지만 경우에 따라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신념이다.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한 신념이 이러한 내세관을 지탱하고 있다. 또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내세관에는 내세는 현세와 중복되어 있고 내세에서 현세를 관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후세계의 존재가 영향력도 행사한다는 견해가 수반된다. 이러한 견해는 인과응보를 굳게 믿을수록 강해진다.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은 없으며, 내세에 대한 정서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의 한곳으로 가게 된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신앙의 유무에 따라 내세에서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신앙결정론적 신념이 있다. 인과응보론을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천국지옥형에 있어 인과응보론은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천국지옥형의 사람들도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천국지옥형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도 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없고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불분명형의 내세관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는 것이며 소멸형의 내세관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보였다. 즉 두 유형 모두 인과응보론을 믿는 사람은 소수이었으나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불분명형의 경우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소멸형의 경우도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단 내세에 대한 관심에 관해서는 불분명형의 사람들이 소멸형의 사람들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유형 모두 사후세계를 생각할 때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긍정적 정서를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개인의 내세관이 일상생활에 있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 실증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 따라서 개인의 내세관이 개인의 일상생활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심리적 실체임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세관 유형과 그에 수반되는 내세관 특성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 및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야 내세관이 다양한 심리적 과정 및 행동을 분석하는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내세관 유형에 대한 개념구성을 토대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구체적인 심리적 과정의 유형간 차이를 예측하고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내세관 유형의 심리적 특징들과 사회적 인지양식(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사고의 귀인, 부정적 사건에 관한 비현실적 낙관

성), 긍정적 환상의 기능(문화적 자기관과의 관계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여), 그리고 위험감수(risk taking) 경향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은 세속적 세계에 대한 하나의 인지양식이며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지양식인 내세관과 밀접한 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사건·사고에 관한 비현실적 낙관성, 사고의 귀인, 위험감수 경향 등 사고와 관련되는 변인들은 간접적으로 죽음과 관계를 갖는 생각 또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표상인 내세관과의 관련이 예상된다. 또 문화적 자기관은 동·서양 문화간에 존재하는 심리적 과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일반적 분석 틀로 제시된 개념이고 문화심리학 영역에서 이론적 중요성을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임상심리학과 건강심리학을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으로서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적인 변인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사회적 인지양식에 대한 비교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구미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벌을 받는 공정한 세계라는 신념(belief in a just world)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통제감의 환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를 책망함으로써 그 사건, 사고를 정당화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하기도 한다(Lerner, 1980). 이러한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은 내세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즉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과 내세에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절대자를 믿는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애매한 불분명형이나 사후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소멸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이 “공정한 세계라고 하는 신념”이 더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초월적 세계에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신념을 포함하는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은 세속적 세계에 대한 공정성을 높게 추정하게 하는 인지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고의 귀인

삶의 통합적 요소로서 종교의 역할을 조사하는 심리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Allport(1966)의 근본적 통찰, 즉 종교성은 내재적인 종교성향과 외재적인 종교성향으로 분류하지 않는 한 진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통찰을 토대로 하고 있다(King & Hunt, 1972). Allport(1966)에 따르면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종교 안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발견하고 다른 동기들은 궁극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들은 신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화하며, 또 그것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타적이며,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서나 종교 관련 서적을 읽는 등 교리에 대한 지적인 관심도 보인다. 한편,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해서 그 유효성을 느끼지도 모른다. 예컨대 그들은 종교를 안정과 위안, 사교성과 기분전환, 지위와 자기 정당화를 부여해주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며, 종교적 신념은 가볍게 취급하거나, 아니면 당초의 요구에 더 적합하도록 변형시킨다.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 종교적 교리를 중요시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적 통제 경향을 보이고 종교적 교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외적 통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외적 통제 경향을 보였다(이누미야, 1997). 종교적 교리를 중요시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인은 주로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나 불분명형, 또는 소멸형 등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이누미야 등, 2001; 한국궐립조사연구소, 1984, 1998).

내적 통제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천국지옥형의 사람들은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운이나 우연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 노력과 주의 같은 내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고 예방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신의 가호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사고는 직접 통제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조상이나 다른 신들, 그리고 자기의 전생에 의해 현재 생활의 화복이 결정된다는 신념을 갖는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나 불분명형의 사람들, 그리고 초월적 존재나 세계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소멸형의 사람들은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통제할 수 없는 운이나 우연과 같은 외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현실적 낙관성

서구인들은 나이나 사회, 경제적 계급에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에 비해 긍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Weinstein, 1980,

1987). 이러한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은 특히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크게 나타난다(Weinstein, 1984).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학생들도 전반적으로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unrealistic optimism bias)을 보였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건들의 발생 가능성을 무종교인들보다 낮게 추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누미야,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기독교인과 무종교인은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과 관련이 있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나 자기존중감, 생활만족도의 수준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비현실적 낙관성이 높은 것은 문화적 자기관 등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여진다(이누미야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세관 유형에 따른 비현실적 낙관성의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즉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 한곳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는 죽은 후에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천국지옥형의 사람들이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나 불분명형, 또는 소멸형 등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Weinstein(1980)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합리화 기제로서 사건에 대한 개인적 통제감을 중요시했다. 통제감이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이 커지는데, 이는 사건·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신에게는 부정적 사건이 보다 더 적게 발생할 것이라는 신념을 합리화하기 위한 심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누미야 등(1999)의 연구에서 무종교인의 경우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통제

감을 느낄수록 비현실적 낙관성이 높았으나, 기독교인의 경우는 통제감과 비현실적 낙관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현실적 낙관성의 합리화 기제는 내세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세에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절대자를 믿는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이나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은 소멸형과 불분명형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통제감의 환상에 의거한 합리화 기제가 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긍정적 환상에 대한 비교

자기 자신과 깊이 관련된 현실을 긍정적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서양 사람들의 경향성이 지적되어 왔다(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88). Taylor와 Brown(1988)은 서양 사람들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경향을 긍정적 환상(positive illusions)이라 명명하고, 이것을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자기관(unrealistically positive views of the self), 과장된 개인적 통제감의 지각(exaggerated perceptions of personal control),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이라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자기관련 정보의 긍정적 왜곡은 우울하거나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훨씬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Taylor & Brown, 1988, 1994). 그러나 여러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자기관련 정보의 긍정적 왜곡은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한 서구, 특히 북미 종류 계급의 문화에 한해서 나타나는 자기고양 편향이고,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동양문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경험적 연구의

자료가 축적되어 왔다(Markus & Kitayama, 1991).

그런데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단일 차원의 양극개념이 아니라, 직교하는 이차원적인 개념이며 어떤 문화에서도 이것들은 어느 정도 혼재하고 있다(이누미야 등, 1999; 黒川, 1994; 北山, 1995; 高田, 1992; Markus & Kitayama, 1991). 또한 어떤 문화 내에서 우세한 자기관에 관한 중심적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변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특정한 자기관이 우세한 하나의 문화 내에도 비전형적인 자기관이 우세한 하위집단이나 개인이 존재한다(木内, 1996; 高田, 1992; 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상과 같은 분석들은 문화간 비교에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개인차를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이누미야 등, 1999; 高田 大本 清家 1996).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누미야 등(1999)의 연구에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긍정적 환상의 일종인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한국문화 내에서도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에게는 역시 자기고양 편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 유형에 따라 중요시되는 긍정적 환상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의 관계 및 생활만족도와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대한 내세관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기고양 편향의 특징에 대해 내세관의 관점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내세관 유형에 따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에 수반되는 긍정적 환상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내세관 유형에 따라 정신적 건강의 한 지표인 생활만족도와 긍정적 환상간의 관계에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긍정적 환상의 종류로

서는 Taylor와 Brown(1988)이 구분한 세 가지 하위 범주 중에서 내세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개인적 통제감의 지각과 비현실적 낙관성의 두 가지 하위범주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위험감수 경향에 대한 비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선택지의 이행인 위험감수(risk taking) 행동은 심각한 건강문제, 인간 행동의 적합성, 인간 사고의 합리성, 또는 행동 특성의 표현형 결정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상대적 중요성과 같은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Byrnes, Miller & Schafer, 1999). 연구자들이 채용하는 위험감수 행동에 대한 정의에는 제한적 정의와 포괄적 정의가 있다. 제한적 정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방비의 성관계와 같은 전형적 행동만을 포함하는 반면, 포괄적 정의에서는 위험감수를 비전형적 행동까지 포함하여 성격 특성과 유사한 일종의 경향성으로 간주한다. 다양한 위험감수 행동간의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신체적 위험, 경제적 위험, 그리고 사회적 위험(위법성)과 관련된 위험감수 행동이 일상생활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감안하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Byrnes et al., 1999).

위험감수 경향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Arnett(1992)의 다요인 모델에서는 개인이 나타내는 위험감수 경향의 수준은 두 가지 요인, 즉 자극 추구(sensation-seeking)와 같은 기질적 경향과 문화로 인해 부가된 제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단, 문화적 제한은 자극 추구자가 갖는 위험감수 행동으로의 경향을 줄이고 억제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로서의 내세관과 위험감수 경향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멸형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은 다양한 자극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종교적 규범(예;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규범 등)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고, 또한 유일무이한 삶의 기회인 현세의 생활에서 보다 많은 것을 향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더 감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한편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나 천국지옥형의 사람들은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심리학(folk psychology)'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이누미야 등, 2001), 내세를 믿는 긍정적 영향으로서 보다 건실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더 회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은 불분명형이나 소멸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가설 2. 내세지향적 환생형, 불분명형, 소멸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은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보다 외부귀인 경향이 강할 것이다.

가설 3.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은 내세지향적 환생형, 불분명형, 소멸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보다 비현실적 낙관성이 강할 것이다.

가설 4. 소멸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은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보다 위험감수 경향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의 관계가 내세관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

나는지 확인한다.

연구문제 2. 생활만족도와 긍정적 환상의 관계가 내세관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에는 K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듣는 29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남자 179명, 여자 110명, 무응답 1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1.5세이었다. 설문 조사는 수업 시간에 단체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내세관

이누미야 등(2001)이 제작한 내세관 척도를 사용하여 내세관 유형과 내세관 특성을 측정하였다. 내세관 유형은 소멸형, 현세지향적 환생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저승형, 하늘나라형, 천국지옥형, 천당연옥지옥형, 다층이동형, 불분명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세관 특성에 포함된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혈통적 인과응보론, 신앙결정론, 절대예정론, 내세에 대한 관심도·확신도·부정적 및 긍정적 정서, 내세관의 기원과 영향에 관한 일반인의 '심리학'(folk psychology)의 11개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5점 척도(1점-그렇지 않다, 5점-그렇다)로 평가하게 하였다(부록 참조).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

의 질문지를 구성하여 5점 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6이었다.

사고의 귀인

사고 원인에 대한 귀속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3문항 질문지를 구성하여 5점 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수치가 커질수록 사고의 외부귀인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51이었다.

비현실적 낙관성

본 연구에서는 Heine와 Lehman(1995)의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질문지 10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비현실적 낙관성은 '긍정적인 일은 남보다 나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일은 남보다 자신에게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이므로 초기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 모두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사건보다는 부정적 사건에 있어서의 비현실적 낙관성이 일관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질문지에서는 부정적 사건에 관한 문항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비현실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상대적 측정과 절대적 측정의 두 가지 방식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이누미야 등, 1999)에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대적 측정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절대적 측정 방식을 사용했다. 절대적 비현실적 낙관성의 측정에서 피험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받게 된다. 첫째는 '당신이 다음의 사건을 겪을 가능성을 절대적인 퍼센트로 평정하시오(질문지 1)'와 같은 질문이고, 두 번째는 '같은 학교의 동성의 다른 학생이 다음의 사건을 겪을 가능성을 절대적인 퍼센트로 평정하시오(질문지 2)'와 같은 형식의

질문이다. 비현실적 낙관성은 첫 번째 질문지에서 얻은 점수와 두 번째 질문지에서 얻은 점수의 차로 측정된다(질문지2의 측정치 - 질문지1의 측정치). 본 연구에서는 그 수치가 커질 수록 비현실적 낙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4이었다.

그리고 각 사건들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심각도를 1(전혀 심각하지 않음)에서 100(매우 심각함)의 범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사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6과 .69이었다.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다카타(高田) 등(1996)이 제작한 20문항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개정판)를 번안해서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이 척도는 Markus와 Kitayama(1991)가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제시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개발 과정에서는 일본적 자기(高田, 松本, 1995)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일본문화의 특수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각각 독립된 차원임을 가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2, .74였다.

생활만족도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위험감수 경향

일상생활에 있어서 위험감수 행동을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yrnes 등(1999)의 위험감수 경향에 관한 개관 연구를 참고로 평상시의 행동과 가상적 상황에서 예상되는 행동에 대한 12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여 5점 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0이었으며, 문항-총점 상관의 범위는 .32에서 .52였다.

결 과

내세관과 심리과정

내세관과 심리과정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내세관과 사회적 인지양식(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사고의 귀인, 부정적 사건에 관한 비현실적 낙관성), 긍정적 환상의 기능(문화적 자기관과의 관계,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여), 및 위험감수(risk taking) 경향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내세관 유형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차이, 내세관 유형에 따른 내세관 특성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 그리고 내세관 유형에 따른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관계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표 1, 2,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네 가지 주요 내세관 유형(이누미야 등, 2001), 즉 소멸형($n=39$, 13.4%), 내세지향적 환생형($n=72$, 24.8%), 천국지옥형($n=40$, 13.8%), 불분명형($n=75$, 25.9%)에 한해서 비교하였으며, 사례수가 적은 현세지향적 환생형($n=19$, 6.6%), 저승형($n=12$, 4.1%), 하늘나라형($n=10$, 3.4%), 천당연옥지옥형($n=13$, 4.5%), 다층이동형($n=10$, 3.4%)의 자료는 내세관 특성과 연구변인

표 1. 내세관 유형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평균 비교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평균 (표준편차)	F
사례수	39	72	40	75	226	(3, 222)
상호독립적 자기관	4.97 _a	4.90 _a	4.91 _a	5.05 _a	4.96(.78)	.50
상호협조적 자기관	5.02 _a	5.08 _a	4.97 _a	5.02 _a	5.03(.59)	.27
생활만족도	2.86 _a	2.86 _a	3.22 _a	2.96 _a	2.96(.78)	2.05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3.13 _a	3.71 _b	3.64 _b	3.42 _{a,b}	3.50(.72)	6.66 ^{***}
사고의 귀인	3.17 _b	3.12 _{a,b}	2.80 _a	3.20 _b	3.10(.68)	3.53 [*]
비현실적 낙관성	2.27 _a	4.05 _a	7.54 _a	3.53 _a	4.19(11.87)	1.49
부정적 사건에 대한 통제감	3.64 _a	3.75 _a	3.75 _a	3.76 _a	3.73(.49)	.58
부정적 사건의 지각된 심각도	70.35 _a	69.84 _a	71.82 _a	70.32 _a	70.44(13.42)	.19
위험감수 경향	2.79 _b	2.57 _{a,b}	2.38 _a	2.63 _{a,b}	2.59(.49)	5.04 ^{**}

* $p < .05$, ** $p < .01$, *** $p < .001$, _{a,b} Scheffé 사후비교 결과

간의 전체 상관분석에서만 사용하였다.

사회적 인지양식에 대한 비교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내세관 유형에 따른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의 수준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내세관 유형에 따라 이 세상이 공정하다는 신념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F(3, 222)=6.66$, $p < .001$. 각 유형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Scheffé 사후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내세지향적 환생형(3.71)과 천국지옥형(3.64)은 소멸형(3.13)보다 이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불분명형(3.42)은 다른 어떤 유형과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내세관 특성과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

과 처벌은 사후세계에서 자기 자신이 받는다는 신념)은 세상의 공정성에 관한 신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9$, $p < .001$. 다만 이러한 관계가 불분명형과 내세지향적 환생형에서는 확실히 나타났으나, $r=.43$, $r=.33$, $p < .01$, 천국지옥형과 소멸형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00$, $r=.12$, ns . 그리고 혈통적 인과응보론(조상이 지은 죄는 후손이 갚아야 한다는 신념)도 세상의 공정성에 관한 신념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8$, $p < .001$. 단 이러한 관계도 불분명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소멸형에서는 확실히 드러났으나, $r=.44$, $p < .01$, $r=.20$, $p < .10$, $r=.33$, $p < .05$, 천국지옥형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2$, ns . 그리고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경우,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에 대해서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세상의 공정성에 관한 신념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3$, $p < .01$.

표 2. 내세관 유형에 따른 내세관 특성과 연구변인들간의 상관

소멸형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생활만족도	세상의 공정성	비현실적 낙관성	심각도	통제감	사고의 귀인	위험감수 경향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06	-.07	.47**	.12	.19	-.10	.20	-.11	-.07
혈통적 인과응보론	-.07	-.03	-.00	.33*	-.20	.22	-.12	.26 ⁺	.07
공간적 관계	-.03	-.01	.10	.06	-.15	-.01	-.09	.48**	.37*
관심	-.45**	.39*	-.24	-.07	-.14	.08	-.51**	.03	-.01
확신	.34*	-.08	.22	.00	.13	-.23	.00	-.08	-.12
부정적 정서	-.64**	.41**	-.12	.05	-.21	.38*	-.20	.13	-.02
긍정적 정서	-.06	-.10	-.06	-.22	.01	-.19	-.29 ⁺	-.05	-.08
기원에 관한 '심리학'	-.10	.21	-.16	.13	-.06	-.03	.06	.11	.18
영향에 관한 '심리학'	-.33*	.22	-.23	.04	-.25	.15	-.28 ⁺	.31 ⁺	.10

내세지향적 환생형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생활만족도	세상의 공정성	비현실적 낙관성	심각도	통제감	사고의 귀인	위험감수 경향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03	.15	.11	.33**	-.02	.02	.25*	-.01	.04
혈통적 인과응보론	.12	.07	.12	.20 ⁺	-.02	-.03	.36**	-.21 ⁺	.07
공간적 관계	-.12	-.03	.20 ⁺	.33**	-.03	.01	.06	.16	-.01
관심	-.02	.00	.03	.11	-.12	-.00	.13	.12	-.03
확신	.00	.01	.11	.33**	-.11	.01	.15	.07	-.15
부정적 정서	-.19 ⁺	.04	.01	-.13	-.08	.04	-.13	.21 ⁺	-.03
긍정적 정서	-.03	-.15	-.06	.07	-.13	-.16	.00	-.03	-.10
기원에 관한 '심리학'	-.27*	-.00	-.09	-.27*	-.01	.16	-.12	-.07	-.01
영향에 관한 '심리학'	.06	.02	.11	.08	-.08	-.03	.19 ⁺	-.03	-.01

전국지옥형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생활만족도	세상의 공정성	비현실적 낙관성	심각도	통제감	사고의 귀인	위험감수 경향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02	.48**	.26 ⁺	-.00	.07	-.01	-.13	-.13	.01
혈통적 인과응보론	-.07	.19	.08	.12	-.09	.11	.01	.03	.01
신앙결정론	.07	-.06	.05	-.01	.09	.08	-.13	.11	-.03
절대예정론	-.37*	.22	-.04	-.13	-.23	.06	-.16	.30 ⁺	.14
공간적 관계	-.17	.12	-.26	-.10	-.17	.24	-.19	.25	-.12
관심	.33*	-.15	.36*	-.07	.45**	.04	.11	-.21	-.38*
확신	.15	-.20	.00	.23	.36*	-.12	.24	.01	-.23
부정적 정서	-.31*	.22	-.22	-.12	-.29 ⁺	.05	-.25	-.07	-.05
긍정적 정서	.27 ⁺	-.17	.10	.45**	.31 ⁺	-.16	.19	-.03	-.29 ⁺
기원에 관한 '심리학'	-.03	-.13	-.10	-.13	-.10	-.12	-.10	-.06	.04
영향에 관한 '심리학'	.17	-.19	.35*	.27 ⁺	.24	-.16	.15	.09	-.37*

불분명형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생활만족도	세상의 공정성	비현실적 낙관성	심각도	통제감	사고의 귀인	위험감수 경향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06	-.18	.20 ⁺	.43**	.10	-.05	.11	-.20 ⁺	-.05
혈통적 인과응보론	.32**	-.20 ⁺	.21 ⁺	.44**	.17	.16	.09	-.13	-.19 ⁺
공간적 관계	-.10	.31**	-.08	-.09	-.03	.10	.16	.23*	.08
관심	-.01	-.10	-.23*	-.05	-.19 ⁺	-.06	-.01	.02	.16
확신	-.02	-.07	-.02	.21 ⁺	.23*	.11	.19	.04	.15
부정적 정서	-.15	.28*	.02	.01	.19 ⁺	.07	.00	.22*	-.18
긍정적 정서	.09	-.00	.12	-.03	.08	-.00	.11	-.10	.04
기원에 관한 '심리학'	.14	.05	.03	.03	.13	.17	.08	.08	-.03
영향에 관한 '심리학'	-.16	.04	.03	-.08	-.00	.04	-.13	.11	-.02

⁺ $p < .10$, * $p < .05$, ** $p < .01$

표 3. 내세관 유형에 따른 연구변인간의 상관

소멸형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생활만족도	세상의 공정성	비현실적 낙관성	심각도	통제감	사고의 귀인	위험감수 경향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54 ^{***}								
생활만족도	.36 [*]	-.21							
세상의 공정성	-.01	.24	.04						
비현실적 낙관성	.28 ⁺	-.14	.20	-.07					
심각도	-.37 [*]	.52 ^{**}	.06	.09	-.06				
통제감	.26 ⁺	.04	.48 ^{**}	.20	.27 ⁺	.21			
사고의 귀인	-.19	.04	-.12	.09	-.28 ⁺	-.15	-.31 ⁺		
위험감수 경향	-.06	.13	-.02	.10	-.31 ⁺	-.01	-.01	.57 ^{***}	
내세지향적 환생형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생활만족도	세상의 공정성	비현실적 낙관성	심각도	통제감	사고의 귀인	위험감수 경향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43 ^{***}								
생활만족도	.50 ^{***}	-.34 ^{**}							
세상의 공정성	.19 ⁺	.03	.40 ^{***}						
비현실적 낙관성	.19 ⁺	.01	.06	.14					
심각도	.04	-.09	.03	-.05	.05				
통제감	.37 ^{**}	-.09	.31 ^{**}	.29 [*]	.19	.06			
사고의 귀인	-.20 ⁺	-.06	-.22 ⁺	-.10	-.01	.00	-.30 ^{**}		
위험감수 경향	.11	.03	-.07	-.06	-.02	.05	-.03	.05	
천국지옥형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생활만족도	세상의 공정성	비현실적 낙관성	심각도	통제감	사고의 귀인	위험감수 경향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28 ⁺								
생활만족도	.21	-.25							
세상의 공정성	-.12	-.07	.25						
비현실적 낙관성	.43 ^{**}	-.09	.29 ⁺	.08					
심각도	-.13	.08	-.15	.06	-.03				
통제감	-.03	-.32 [*]	-.03	-.02	.00	-.02			
사고의 귀인	-.21	.20	-.09	-.05	-.19	.12	-.01		
위험감수 경향	-.10	.23	-.34 [*]	-.32 [*]	-.17	-.15	-.01	.31 [*]	
불분명형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생활만족도	세상의 공정성	비현실적 낙관성	심각도	통제감	사고의 귀인	위험감수 경향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34 ^{**}								
생활만족도	.30 ^{**}	-.00							
세상의 공정성	.22 ⁺	-.04	.20 ⁺						
비현실적 낙관성	.06	-.02	.17	.25 [*]					
심각도	.17	.02	-.04	.03	-.03				
통제감	.34 ^{**}	-.02	.09	.27 [*]	.21 ⁺	.08			
사고의 귀인	-.44 ^{***}	.08	-.34 ^{**}	-.29 ^{**}	-.06	-.03	-.38 ^{**}		
위험감수 경향	-.17	-.07	-.24 [*]	-.18	-.10	-.18	-.05	.22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내세관 유형에 따른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과 내세관 특성간의 상관

	전체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39 ***	.12	.33 **	-.00	.43 **
혈통적 인과응보론	.28 ***	.33 *	.20 +	.12	.44 **
공간적 관계	.08	.06	.33 **	-.01	-.09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사고의 귀인

다음으로 내세관 유형에 따라 사고에 대한 귀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F(3, 222)=3.53$, $p < .05$. 각 유형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천국지옥형(2.80)은 소멸형(3.17)과 불분명형(3.20)에 비해 사고의 원인을 내부로 돌리는 경향이 강했으나, 내세지향적 환생형(3.12)은 다른 어떤 유형과도 차이가 없었다 (표 1 참조).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에 대해서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사고 발생에 관해 외부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17$, $p < .01$. 다만 이러한 경향은 소멸형과 불분명형에서 현저했으나, $r=.48$, $p < .01$, $r=.23$, $p < .05$, 천국지옥형과 내세지향적 환생형에서는 현저하지 않았다, $r=.25$, $r=.16$, m (표 5 참조).

비현실적 낙관성

내세관 유형에 따른 비현실적 낙관성의 수준에

는 차이가 없었다, $F(3, 222)=1.49$, m (표 1 참조).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비현실적 낙관성의 합리화 기제에 관해서는 유형간에 차이를 보였다. Weinstein(1980)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중요시하여, 통제감이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것은 부정적 사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는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합리화하는 기제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합리화 기제는 소멸형과 불분명형에서만 나타났으며, $r=.27$, $r=.21$, $p < .10$,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r=.19$, $r=.00$, m (표 6 참조).

긍정적 환상에 대한 비교

자기고양 편향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내세

표 5. 내세관 유형에 따른 사고의 귀인과 내세관 특성간의 상관

	전체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공간적 관계	.17 **	.48 **	.16	.25	.23 *

* $p < .05$, ** $p < .01$

표 6. 내세관 유형에 따른 비현실적 낙관성과 통제감간의 상관

	전체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비현실적 낙관성 - 통제감	.19 **	.27 +	.19	.00	.21 +

+ $p < .10$, ** $p < .01$

표 7. 내세관 유형에 따른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간의 상관

	전체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상호독립적 자기관 - 통제감	.28 **	.26 +	.37 **	-.03	.34 **
상호독립적 자기관 - 비현실적 낙관성	.18 **	.28 +	.19 +	.43 **	.06

+ $p < .10$, ** $p < .01$

지향적 환생형, 소멸형 및 불분명형에서는 강한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부정적 사건·사고에 대한 통제감이 높았으나, $r = .37$, $p < .01$, $r = .26$, $p < .10$, $r = .34$, $p < .01$, 천국지옥형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3$, m . 그러나 또 하나의 자기고양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현실적 낙관성에 관해서는 천국지옥형의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r = .43$, $p < .01$, 내세지향적 환생형, 소멸형 및 불분명형에서는 그것보다 덜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r = .19$, $r = .28$, $p < .10$, $r = .06$, m .

생활만족도와 의 관계

표 8. 내세관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긍정적 환상간의 상관

	전체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생활만족도 - 통제감	.17 **	.48 **	.31 **	-.03	.09
생활만족도 - 비현실적 낙관성	.20 ***	.20	.06	.29 +	.17

+ $p < .10$, ** $p < .01$, *** $p < .001$

생활만족도와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천국지옥형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만이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29$, $p < .10$, 부정적 사건에 대한 통제감은 생활만족도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3$, m . 한편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소멸형에서는 통제감만이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r = .31$, $r = .48$, $p < .01$, 비현실적 낙관성은 생활만족도와 상관이 없었다, $r = .06$, $r = .20$, m . 그러나 불분명형의 경우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통제감과 비현실적 낙관성 모두 생활만족도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9$, $r = .17$, m (표 8 참조).

표 9. 내세관 유형에 따른 위험감수 경향과 내세관 특성간의 상관

	전체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관심	-.07	-.01	-.03	-.38*	.16
긍정적 정서	-.20**	-.08	-.10	-.29*	.04

* $p < .10$, * $p < .05$, ** $p < .01$

위험감수 경향에 대한 비교

내세관 유형에 따른 위험감수 경향의 수준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내세관 유형에 따라 위험감수 경향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3, 222)=5.04$, $p < .01$. 각 유형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사후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소멸형(2.79)은 천국지옥형(2.38)에 비해 위험감수 경향이 강했으나, 불분명형(2.63)과 내세지향적 환생형(2.57)은 다른 어떤 유형과도 차이가 없었다.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천국지옥형의 위험감수 경향 수준이 낮은 것은, 내세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정서가 소멸형보다 높고(이누미야 등, 2001), 내세에 대한 관심과 위험감수 경향간에 부적 상관이 있고, $r = -.38$, $p < .05$, 내세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위험감수 경향간에도 부적 상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 = -.29$, $p < .10$ (표 9 참조).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만족도와 위험감수 경향간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을 보면 천국지옥형 내세관의 위험감수 경향에 대한 억제 효과는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면 약화되는 것 같다, $r = -.34$, $p < .05$. 이것은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면 내세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r = .36$, $p < .05$ (표 2 참조).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위험감수 경향의 수준에 있어 소멸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내세관 특성들과 위험감수 경향간에도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내세관과 심리적 과정 및 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요 내세관 유형의 심리적 특징과 사회적 인지양식(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사고의 귀인, 부정적 사건에 관한 비현실적 낙관성), 긍정적 환상의 기능(문화적 자기관과의 관계,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여), 그리고 위험감수(risk taking) 경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인지양식에 대한 비교

사회적 인지양식에 대한 비교에서 먼저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속적 세계관의 한 측면인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에 관해서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은 소멸형보다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내세관 특성과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이 소멸형보다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세관 유형에 따라 별개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내세지향적 환생형이 소멸형보다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내세지향적 환생형이 개인적 인과응보론, 혈통적 인과응보론, 및 공간적 관계를 긍정하는 정도가 소멸형보다 높고(이누미야 등, 2001), 이러한 세 변인이 각각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과 정적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경우,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이라는 세속적 신념은 인과응보의 법과 그 법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사후세계의 존재들에 대한 신념을 내포한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초월적 세계관에 의해 상대적으로 고양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월적 세계나 윤회전생을 전제로 하는 인과응보론이 세속적인 세상의 공정성에 관한 신념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는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또는 보상하기 위해서) 초월적 세계나 전생까지 포함한 인과응보론이 요청된다는 해석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제감의 환상을 보호하기 위해 내세에서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보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을 필요로 한다는 해석을 부정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 대상자가 일반 성인들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도 모른다.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과 인과응보론간의 관계가 다른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 여부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천국지옥형에 있어서는 개인적 인과응보론, 혈통적 인과응보론, 및 공간적 관계를 긍정하는 정도는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과 상관이 없었다. 천국지옥형이 소멸형보다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를 주관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절대자의 통제하에 내세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윤리적으로 분별된 공간이 실현된다고 본다. 이러한 정의를 실현시키는 절대자를 상정하는 내세관이 기타 유형들과는 달리, 긍정적 정서가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이누미야 등, 2001), 현

세에도 투사되어 그러한 절대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 소멸형보다 이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서,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r=.23$, n ,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62$, $p<.001$,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45$, $p<.01$. 이러한 사실은 천국지옥형 내세관이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에 끼치는 영향은 긍정적 정서의 매개를 거쳐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분명형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수준에 있어 내세지향적 환생형 및 천국지옥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불분명형 가운데에는 세상의 공정성에 관한 신념과 정적 상관이 있는 인과응보론을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누미야 등, 2001)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고의 귀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고 발생에 관한 귀인 양식에 있어서 소멸형과 불분명형은 천국지옥형보다 사고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아무리 주의나 노력을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세계를 주관하는 절대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세계관 속에서는 우연의 지배가 크게 부각되고, 또한 사후세계의 존재들도 인과응보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측도 설명도 못하는 통제불능의 힘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천국지옥형의 경우도 절대예정론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사고 발생에 관한 외부 귀인 경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30$, $p<.10$. 사고의 귀인에 관한 이상과 같은 결과는 측정도구의 낮은 내적 합치도를 감안할 때 개선된 척도를 사용한 후

속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 낙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에 관해서 예상한 방향으로의 경향성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5%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는 없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 한곳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는 죽은 후에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는 신념 자체는 이 세상에서의 부정적 사건에 관한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과 상관이 있는 몇 가지 내세관 특성들이 발견되었다. 즉 천국지옥형 내세관에 대한 관심도 및 확신도, 그리고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와 같은 내세관의 정의적 측면이 비현실적 낙관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45$, $p<.01$, $r=.36$, $p<.05$, $r=.31$, $r=-.29$, $p<.10$. 이러한 결과는 천국지옥형 내세관을 지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으로도 관여할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다 낙관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 유형에 따라 비현실적 낙관성의 합리화 기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nstein(1980)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합리화 기제로서 사건에 대한 개인적 통제감을 중요시했다. 즉 사건·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는 부정적 사건이 보다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합리화하는 심리적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통제감이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이 커진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합리화 기제는 소멸형과 불분명형에서만 나타났으며,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적 통제감의 환상에 의거한 비현실적 낙관성의 합리화 기제는 특히, 소멸형이나 불분명형과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세계를 주관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중요시하지 않는 세계

관 속에서 작동되는 기제이다. 한편 세계를 지배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중요시하는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세계를 주관하는 절대자를 존중하는 천국지옥형의 세계관 속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의 근거로서 개인적 통제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러한 합리화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에 따른 비현실적 낙관성의 행동적 근거의 차이를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멸형의 경우는 기타 유형들과 달리, 비현실적 낙관성과 위험감수 행동이 부적 상관을 보였다, $r=-.31$, $p<.10$. 즉 위험감수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위험감수 행동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멸형의 사람들 가운데 위험감수 행동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낙관성은 확률론적으로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 낙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적' 낙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천국지옥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및 불분명형의 낙관성은 위험한 행동과 관련된 확률론적 추론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 환상에 대한 비교

강한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고양 편향으로 자기관을 지탱하고 자존심을 유지하게 되는데(Bond & Tornatzky, 1973; Mahler, 1974; Markus & Kitayama, 1991; Taylor & Brown, 1988),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에 따라 거기에 동원되는 자기고양 편향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내세지향적 환생형, 소멸형, 및 불분명형에서는 강한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부정적 사건·사고에 대한 통제감이 높았으나, 천국지옥형에서는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통제감은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천국지옥형의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비현실적 낙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Taylor와 Brown(1988)이 분류한 세 가지의 자기고양 편향(과도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 과장된 개인적 통제감, 비현실적 낙관성) 가운데서 통제감과 비현실적 낙관성은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긍정적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속에 바람직한 속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기고양이 작동할 때, 내세지향적 환생형, 소멸형 및 불분명형에서는 개인적 통제감이라는 속성이 중요시되는 반면, 세계를 통제하는 절대자를 상징하는 천국지옥형에서는 절대자에 의한 피통제감이라고 할 수 있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중요한 자기 속성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자기관련 정보의 긍정적 해석이 정신건강에 좋지만(Taylor & Brown, 1988), 본 연구에서는 언제나 모든 종류의 긍정적 환상이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내세관에 따라 영향력이 있는 긍정적 환상의 종류도 달라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소멸형에서는 통제감만이 생활만족도와 상관이 있었고, 천국지옥형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만이 생활만족도와 상관이 있었다는 것은 각 내세관 아래에서 중요시되는 자기 속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불분명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긍정적 환상이 모두 생활만족도와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이 유형의 사람들이 내세관을 위시하여 개인적 통제감의 환상이나 비현실적 낙관성과 같은 어떤 종류의 환상에도 의지하지 않

려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자기관련 정보의 긍정적 해석이 중요한 자기 속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각 내세관 유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천국지옥형에 있어 절대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즉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r=-.37, p<.05$. 이것은 절대예정론을 강하게 믿을수록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절대예정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절대예정론을 부정하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일종의 세계관이 자기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자기관이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세계관과 인간관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신앙결정론과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사이에는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천국지옥형의 사람들이 대부분(82.1%)이 신앙결정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이누미야 등, 2001)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둘째, 불분명형의 경우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정도와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1, p<.01$. 이것은 기타 유형들과는 달리, 뚜렷한 내세관이 없는 불분명형의 경우 타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간관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 그것이 애매한 표상인 사후세계에도 그대로 투사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멸형의 경우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약

한 사람일수록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r=-.45, p<.01$,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r=.39, p<.05$, 천국지옥형의 경우는 반대로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r=.33, p<.05$. 내세에 대한 관심과 상관성이 없는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불분명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관과는 달리, 소멸형과 천국지옥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관은 방향성은 정반대이지만, 내세에 대한 관심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내세관이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개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험감수 경향에 대한 비교

위험감수 경향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Arnett(1992)의 다요인 모델에서 상정된 위험감수 행동에 대한 문화적 제한의 일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의 역할을 검토하였고, 소멸형은 천국지옥형보다 위험감수 경향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멸형 내세관을 갖는 사람들은 다양한 자극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종교적 규범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유일무이한 삶의 기회인 현재의 생활에서 보다 많은 것을 향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더 감수하여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긍정적 영향으로서 보다 건실한 삶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더 회피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은 천국지옥형에서는 지지되었으나, 내세지향적 환생형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내세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정서가에 있어 내세지향적 환생형이 천국지옥형보다 약하기 때문에(이누미야 등, 2001)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 유형에 따라 위험감수 경향의 규정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천국지옥형의 경우 위험감수 행동은 생활만족도와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r=-.34, r=-.32, p<.05$, 사고의 외부 귀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1, p<.05$. 불분명형의 경우 위험감수 행동은 생활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r=-.24, p<.05$, 사고의 외부 귀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2, p<.10$. 한편 소멸형에 있어서는 사고의 외부 귀인만이 위험감수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7, p<.001$. 그런데 내세지향적 환생형에 있어서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천국지옥형에 있어서는 생활이 불만스럽고 세상은 불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모험적 행동이 많아지고 거기에는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어차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하게 행동해도 소용이 없다는 인지과정이 수반된다. 불분명형의 사람들도 생활이 불만스럽다고 느낄수록 모험적 행동이 많아지고 거기에는 역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다는 인지과정이 수반된다. 소멸형의 경우는 생활만족도나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과는 관계없이 모험적 행동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어차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하게 행동해도 소용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모험적 행동은 여기서 고려한 정서적, 인지적 변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양식인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내면화된 윤리적 행동규범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천

국지옥형과 불분명형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제해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적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삶이나 사회가 만족스럽다고 느껴지면 그러한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만 불만스러워지면 그러한 규범을 안 지키게 되는 것이다. 즉 Arnett(1992)가 지적했듯이, 문화로 인해 부가된 제한은 자극 추구자가 갖는 위험감수 행동으로의 기질적 경향을 줄이고 억제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생활에 대한 불만의 축적과 같은 계기로 인해 해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소멸형과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사람들이 생활만족도나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과는 관계없이, 위험부담이 많고 모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절제해야 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적 행동규범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불분명형의 경우 문화적 제한으로서의 행동규범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특히, 소멸형에서는 사고의 외부 귀인 경향과 위험감수 행동이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위험감수 행동을 많이 하는 소멸형의 사람은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어차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하게 행동해도 소용이 없다는 인지과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해 우연과 같은 외적 요인을 강조하는 인지양식은 아무리 위험부담이 많고 모험적인 행동을 많이 해도 사고를 당할 확률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인 방어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별로 부담 없이 위험감수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기제는 천국지옥형이나 불분명형에서도 나타났으나, 특히 소멸형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세계를 주관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 속에

서, 자기자신과 우연 이외에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세관과 심리적 과정 및 행동의 관련성은 심리학 법칙의 보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문화 심리학적 관점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Markus와 Kitayama(1991)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지배적인 북미에서 나타난 심리 현상들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지배적인 동양 문화권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누미야 등(1999)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한일 비교를 통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지배적인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도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경우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한국 내에서도 내세관 유형에 따라 기타 변인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인간의 관계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심리 과정과 행동을 문화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 같은 인간관뿐만 아니라 내세관과 같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세관과 심리적 과정 및 행동의 관련성이 대학생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이나 세대까지 일반화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세관이라는 개념은 변인의 특성상 연령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발달단계나 경험유형이 달라지면 내세관 유형의 분류와 분포 상태도 상이할 수 있으며 다른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김귀분(1978), 유계주(1974), 조길자(1977)의 연구들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현재의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요인으로서 간호학생과 비간호학생, 간호사와 환자, 그리

고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까운 사람의 죽음 경험을 여러 번 겪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에 관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죽었으며 그 때의 본인과 부모 내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현재의 내세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인지양식, 긍정적 환상, 위험감수 경향 이외의 변인과의 관련성 여부도 계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귀분 (1978).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8(1), 85-98.
- 유계주 (1974).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임종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대한간호학회지*, 4(1), 162-178.
- 이누미야 요시유키 (1997). 통제소재와 종교성향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한성열 (2001). 韓國人の來世觀에 관한 探索的研究.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77-96.
- 조길자 (1977). 간호학생과 비간호학생의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33(6), 619-631.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1998).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
- 木内亞紀(기우치 아키) (1996). 獨立・相互依存的自己理解: 文化的影響, およびパーソナリティ特性との關聯. *心理學研究*, 67, 308-313.
- 北山 忍(기타야마 시노부) (1995). 文化的自己觀と心理的プロセス. *社會心理學研究*, 10, 153-167.
- 黒川正流(구로카와 마사나가) (1994). 相互依存性の性質と自己解釋圖式が對人影響行動に及ぼす效果の検討. 平成 4・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 (1992). 獨立的相互依存的自己と自尊感情および社會的比較. *日本グループ・ダイナミックス學會第40回大會發表演文集*, 109-110.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 大本美千惠(오오모토 미치에), 清家美紀(세이케 미키) (1996). 相互獨立的-相互協調的自己觀尺度(改訂版)の作成. *奈良大學紀要*, 24, 157-173.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 松本芳之(마츠모토 요시유키) (1995). 日本的自己の構造-下位樣態と世代差. *心理學研究*, 66, 213-218.
- Allport, G. W. (1966). The religious context of prejud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447-458.
-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39-373.
- Bond, M. H., & Tornatzky, L. G. (1973). Locus of control in students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imensions and levels of response. *Psychologia*, 16, 203-213.
- Byrnes, J. P., Miller, D. C., & Schafer, W. D. (1999). Gender difference in risk taking: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5, 367-38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King, M. B., & Hunt, R. A. (1972). Measuring the religious variable: Replic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1, 240-251.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Mahler, I. (1974). A comparative study of locus of control. *Psychologia*, 17, 135-139.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Brown, J. D. (1994). "Illusion" of mental health does not explain positive illusions. *American Psychologist*, 49, 972-973.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einstein, N. D. (1984). Why it won't happen to me: Perceptions of risk factors and susceptibility. *Health Psychology*, 3, 431-457.
- Weinstein, N. D. (1987).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Conclusions from a community-wide sampl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0, 481-500.

A Social Psychology of the Afterlife Views

Yoshiyuki Inumiya

Korea University

Il-Ho Choi

Myongji University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variations in personality variable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for the Korean view of the afterlife, including 'extinction type', 'the other world-oriented transmigration type', 'heaven/hell type' and 'obscurity type'. The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other world-oriented transmigration type' and 'heaven/hell type' showed significantly stronger belief in a just world than 'extinction type', (2) 'extinction type' and 'obscurity type' showed more external attribution for accidents than 'heaven/hell type', (3) there was no difference in unrealistic optimism levels, (4) depending upon the types for the view of the afterlife, not only preferred self-enhancing biases but also positive illusions which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5) 'extinction type' showed stronger risk-taking tendency than 'heaven/hell type'. These results were explained in terms of features that belong to each afterlife view. Finally, we discusse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y.

key words : afterlife views, belief in a just world, attribution for accidents, unrealistic optimism, positive illusions, risk-taking tendency.

1 차원고 접수일 : 2002. 3. 4.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4. 16.

부 록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 문항들

내세관 유형

-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소멸형)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든 동물로든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현세지향적 환생형)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지만 경우에 따라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내세지향적 환생형)
사람이 죽으면 육체만 썩고, 영혼은 저승으로 가서 이승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저승형)
사람이 죽으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간다.(하늘나라형)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의 한곳으로 가게 된다.(천국지옥형)
사람이 죽으면 천당, 지옥, 연옥 중의 한곳으로 가게 된다.(천당연옥지옥형)
사람이 죽으면 많은 단계가 있는 사후세계로 가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다층이동형)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불분명형)
(주. 위와 같은 9개의 진술문들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한 후, 자신의 견해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게 하였다. 단, 괄호 안의 설명은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세관 특성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 선한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사후세계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을 받으며 악한 삶을 영위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사후세계에서는 현세에서의 선행이나 악행이 문제되지 않는다.(R)
이승에서의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

<혈통적 인과응보론>

- 살면서 지은 죄는 후손이라도 죄를 갚아야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

- 사후세계의 존재들은 현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해를 줄 수도 있다.

<내세에 대한 관심도>

- 나는 사후세계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

<내세에 대한 확신도>

- 내가 믿는 사후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세에 대한 부정적 정서>

-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왠지 무섭다는 느낌이 든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공허함을 느낀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슬픔이 먼저 생각난다.

<내세에 대한 긍정적 정서>

- 사후세계는 나의 희망이다.
사후세계는 나에게 행복이다.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일반인의 심리학>

-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세계가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사후세계라고 생각한다.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일반인의 심리학>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현 세계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후세계의 존재가 죽음이라는 공포를 어느 정도 경감한다고 생각한다.

죽으면 끝이건 그렇지 않건 세상사는 데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R)

<신앙결정론>

이 세상의 창조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메시야로 믿는다면 천국으로 가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간다.

<절대예정론>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주. 신앙결정론과 절대예정론에 관한 문항은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에게만 응답하게 하였다.)

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피해를 볼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세상사는 결국 순리대로 돌아간다.

사고의 귀인

사고 원인에 대한 귀속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아무리 주의를 해도 일어날 사고는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우연이다.

자신이 노력만 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다.(R)

위험감수 경향

나는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나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편이다.

승용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는 편이다.

급하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행동한다.

잠깐 외출할 때도 반드시 문 열쇠를 잠그고 나간다.(R)

기회가 된다면 약간 위험성이 있는 운동(헵글라이더, 암벽등반 등)을 하고 싶다.

약간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준비운동과 같은 부상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R)

나는 특정한 상대(배우자나 애인)이외에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R)

내가 경마를 한다면 적중 확률은 낮더라도 배당이 큰 말에 돈을 걸 것이다.

암 수술을 하게 된다면 안전하지만 수술 후 재발가능성이 있는 수술보다 위험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술을 하겠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안정적인 직종보다 해고의 가능성이 높더라도 해보고 싶은 직종을 선택하겠다.

우범지역이라도 집 값이 상당히 싸면 이사간다.

(R) 역채점문항